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로드맵 나왔다

영광~목포~여수 연결 접근성 개선, 목포·여수 크루즈 상품 개발

광주전남연구원 최종 용역보고서 3대 전략 35개 사업 구체화

남해안 권역을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보석같은 섬·해양 자원을 한 데 묶어 권역별 성장 거점으로 키워내고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연안 크루즈 등 관광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등 3대 전략 11개 프로젝트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해 개발하자는 구상도 제시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열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국토 신성장 축 형성을 위한 남해안 위상 정립 ▲미래혁신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관광 시대 확립 ▲관광자원 융복합을 통한 찾아오는 남해안 형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의 광역벨트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기본 추진방안은 영광에서 목포·완도를 거쳐 여수까지를 서남해안관광 도로로 연결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목포·여수에 유람선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안 크루즈 상품을 개발한다.

지역 자원을 하나로 묶어 권역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남해안을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1개 프로젝트와 35개 세부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안 주요 지역에 관광 거점을 구축한다.

목포권은 근대문화유산과 결합한 문화관광 도시로, 여수권은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도시로, 완도권은 해양치유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

함평 사포·신안 자은도·진도·해남 오시아노·여수 경도 등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국립 난대수목원과 서남해안 명품 섬숲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남도 의병 역사공원과 함께 창작·예술교육·문화마을·물길투어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도 만들 계획이다.

압해~화원·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과 완도~고흥 해안관광 도로 국도 승격, 여수~남해 간 동서 해저터널 건설 등을 건설,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남해안철도(목포~순천) 전철화와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전철화, 서해안철도(군산~무안공항) 연결 등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여기에 흑산공항 조기 건설과 김해~사천~여수~무안~흑산도로 이어지는 스카이투어 항로 개발로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섬 크루즈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목포와 여수에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을 구축하고, 제주~신안~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 등을 오가는 남해안권 광역 연안크루즈를 운행하는 방안, 중국~남해안~일본으로 연결되는 국제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

전남도는 여기에 기존 중간 용역보고서 내용에 추가해 일선 시·군으로부터 제안받은 148개 관련 사업 중 46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 추진하는 방향을 내놓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어려운 한자어 자치법규 쉽게 고친다

일본식·호적법상 용어 순화

광주시가 어려운 한자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고친다.

대상은 자치법규에 자주 쓰이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와 비슷하게 표기됐지만 일반 시민이 뜻을 쉽게 알지 못한 한자어 등이다. 올 11월까지 정비과제를 선정해 일괄개정한다. 또 호적법상 어려운 용어도 순화한다.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중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지자체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1390건으로 이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 조례는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개선 한자는 광주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에 쓰인 계리(計理)로 회계처리로 순화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내 정비가 필요한 151건을 발굴해 적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 13명 공개 모집

광주시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가운데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위원 13명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등 직능단체 추천 10명, 건축·도시계획·복지·환경·교육·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공개모집 13명, 시의회와 공무원 등 당연직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12월1일부터 2021년 11월30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도시계획, 디자인, 공동체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응모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ACE Fair 개막 26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2019 광주 ACE Fair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의발명·미래과학 체험…광주과학관서 만나요

28~29일 '과학발명페스티벌'

광주시는 28~29일 양일 간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과학문화협회와 함께 '2019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을 연다.

올해 페스티벌은 '과학이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기초과학, 창의발명, 미래과학 주제의 다양한 체험을 한자리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기초과학, 창의발명, 미래과학 등 총 6개 마당, 67종의 과학문화 행사가 마련된다.

기초과학마당에서는 화학 반응으로 달리는 자동차, 멸치 해부하기, 퍼즐 공 만들기 등, 창의발명마당에서는 코끼리 진공청소기 만들기, 쌩쌩 전동 풍력자동차 등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미래과학마당에서는 코딩게임, 레고를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VR)체험관, 3차원(3D) 증강현실 & 나도 인공지능(AI) 그림작가 등 4차 산업시대를 주제로 하는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협력참여마당에서는 증강현실(AR)도슨트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서킷 & 페이퍼아트 체험(국립중앙과학관), 친구들과 터치하며 플레이 러닝(엠에스코리아), 쪼물락 코딩로봇(씨앤알테크), 사진으로 보는 지구(내셔널지오그래픽), 꿈을키우는이동과학교실(전남과학교육원)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됐다.

특별강연도 준비됐다.

차의과대학 유종만 교수가 전하는 줄기세포 특별강연(28일 오후 1시30분), 인간예술가 김치영과 인공지능 작곡가 안창욱 교수가 펼치는 인공지능 작곡가의 세계 토크 콘서트(28일, 오후 3시30분),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수상자 발명가 김명철 교사가 괴짜발명가의 신나는 발명이야기(29일 오후 2시30분)를 제목으로 강연을 전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국산화 지원 잰걸음

대불산단에 '기술지원센터' 준공…부품·기자재 시험평가·컨설팅

레저선박 부품·기자재의 국산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인증 기반 시설인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기술지원센터'가 26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본부와 함께 이날 영암 대불산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영암군,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기술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기술지원센터는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기반구축사업 중 하나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03억원을 들여 9638㎡ 부지에 연구동, 시험동, 시제품 제작지원동과 관련 장비 등을 갖추게 된다.

요트 등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조 분야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부품과 기자재를 대부분 유럽·미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센터의 역할에 전남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차적으로 이날 완공한 기술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 최대 평판형 완전무향실인 '해상복합 무향챔버'와 소음·진동, 해상환경 성능평가 시험장비 등 관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12종을 구축했다. 레저선박 건조 기업에 대한 부품 및 기자재 시험평가와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2021년까지 전자파 성능평가 장비를 비롯한 13종의 장비를 추가로 구축, 총 15개 항목의 시험평가 지원 등 레저선박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레저선박산업 분야의 설계·시험인증·디자인 개발 등 체계적 기술 지원을 통해 국내 레저선박 건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촌산단~광산경찰서 외곽도로 하반기 공사

광주시, 사업비 35억 확보

광주시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광산구 소촌산단과 광산경찰서를 연결하는 소촌산단 외곽도로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산구 소촌동에 지난 1983년, 1988년 각각 조성된 소촌일반산단과 소촌농공단지의 서측과 북측 외곽을 아우르는 총연장 1277m를 폭 20m 도로로 개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6년 광산경찰서가 들어서면서 소촌산단 서측 시점부 120m가 일부 개설되었고, 2015년 북측 종점부 510m가 일부 개설된 바 있다.

광산경찰서 뒤편과 소촌산단 북측을 연결하는 잔여 647m 구간은 작년 2월 공사를 착공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특별교부세 35억원 확보와 함께 올해 시비 35억원을 포함한 총 70억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상을 마무리 짓고 202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전 구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